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6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 육성 감귤 신품종 3종 보급 시실-6면(24.2.26.)	과수연구과	농업정보신문
○	올해 노지감귤 발아 최대 8일 빨라-2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빨라지는 발아... 노지감귤 피해 우려-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연일 이어지는 비날씨 ‘지긋지긋’ ... 농작물 관리도 ‘비상’ -5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지긋지긋한 ‘비’ ... 제주 농가 ‘한숨’ -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잦은 비... 농작물 관리 주의-4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농업·농촌 소식-13면	기술지원조정과	뉴제주일보
○	제주 양배추 농가 ‘이중고’ ... 전남산 경합에 연일 비-6면	-	뉴제주일보
○	농작물 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과다 농업인 ‘불만’ -6면	-	제주매일
○	‘임대형 스마트팜’ 도전 청년농 모집 한국농어촌공사, 25일까지 신청 접수-6면	-	제주매일

(농업정보신문: 2024년 2월 26일)

○ 제주 육성 감귤 신품종 3종 보급 시설-6면

제주 육성 감귤 신품종 3종 보급 실시

가을향·우리향·달코미 등 올해 17.5ha 면적에 보급



제주농기원이 '황금향'과 '레드향' 교배 육성하여 2022년 품종보호출원한 감귤 '우리향'.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연내 출하형 만감류 품종 개발에 착수해 2021년 '가을향', 2022년 '우리향'과 '달코미'를 각각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했으며, '우리향', '달코미'는 지난해 21개 도내 종묘업체와 통상실시를 통해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보급되는 규모는 '가을향' 2,267주(1.3ha분), '우리향' 1만 4,445주(8.6ha분), '달코미' 1만 2,767주(7.6ha분) 총 3개 품종 2만

9,479주(17.5ha분)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보급되는 3개 품종이 연내 수확형으로 껍질 벗기기가 쉽고 당산비가 높은 고당도 품종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품종 감귤 묘목을 구입하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u.go.kr/agri/index.htm>)에서 묘목 생산 업체를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세영 농업연구사는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고품질 품종이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됨에 따라 고당도 품종 갱신과 국산 품종의 점유율 확대에 이어서 감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26.

농업정보신문 6

(제민일보: 2024년 3월 06일)

○ 올해 노지감귤 발아 최대 8일 빨라-2면

올해 노지감귤 발아 최대 8일 빨라

제주도 서리피해 주의 당부

전년대비 2~5일, 평년대비 8일
겨울 기온·강수량 상승 등 영향
전·평년 대비 1.1~2.4도 수준↑
강수량도 52.9~149.1mm 많아

최근 겨울철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영향으로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최대 8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서리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가 8.5도, 서귀포시 9.2도로 전·평년대비 1.1도에서 최대 2.4도 높았다.

강수량 역시 제주시 280.8mm, 서귀포시 191.4mm로 모두 전·평년 대비 52.9~149.1mm 많았다.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기 예측 결과 △제주시는 3월 28~29일로 전년(4월 3일)대비 5일, 평년(4월 6일) 대비 8일 빠르며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년(3월 29일)대비 2일, 평년(4월 4일)대비 8일 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하게 되는 만큼 관리를 당부했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창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면서 전정도 최대한 늦출 것을 권했다.

서리 상습 피해지역 노지감귤원의 경우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하는 것이 좋다.

서리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소 0.2%액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회복에 힘써야 한다.

또 병해충 조기발생 및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꿀응애, 더듬이병, 궂양병 등 예방을 강화하고 사전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현광철 기술지원팀장은 "조기발아한 어린 눈이 저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후변화로 감귤 생육주기가 변화하고 있으니 기상과 과원 상황에 알맞게 농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3.6.부했다.

제민일보 2

(한라일보: 2024년 3월 06일)

○ 빨라지는 발아... 노지감귤 피해 우려-6면

빨라지는 발아... 노지감귤 피해 우려

농기원, 평년보다 8일 빠른 이달 26~29일 발아 예측
기온 상승 등 영향... “전정 늦추는 등 피해 예방을”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평년 대비 8일가량 당겨질 전망이다.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기온 상승과 최근 연이어 비 오는 날씨에 의한 강수량 증가로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 서리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1~

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8.5℃, 서귀포시 9.2℃로 전년·평년에 견줘 1.1~2.4℃ 높았다. 강수량도 제주시 280.8mm, 서귀포시 191.4mm로 전년·평년 대비 52.9~149.1mm 많았다.

도내 해안지역 기준, 발아기 예측 시기는 제주시 3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 대비 8일 빠르다.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

년 대비 2일, 평년 대비 8일가량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 농업기술원은 이른 발아로 인해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 피해를 보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할 수 있어 농가에서의 주의를 당부했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창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고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또한 서리

상습 피해지역의 노지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한다.

서리 피해가 발생하면 요소 0.2%액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 회복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병해충 조기 발생 및 확산이 예상되며 굴응애, 더듬이병, 궂양병 등의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3.6다.
백금한라일보 6m

(제주매일: 2024년 3월 06일)

○ 연일 이어지는 비날씨 ‘지긋지긋’... 농작물 관리도 ‘비상’ -5면

연일 이어지는 비날씨 ‘지긋지긋’...농작물 관리도 ‘비상’

지난달 29일 가운데 17일 ‘비’...강수량도 전년대비 2배 이상
하우스딸기 곰팡이 때문 수확 차질...노지감귤 발아 앞당겨져

연일 이어지는 비 날씨로 제주지역 농산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이 집계한 제주지역 최근 3개월간 월별 강수량을 보면 평균 15일 넘게 비가 왔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16일, 1월은 14일, 지난 달인 경우는 29일 가운데 17일 동안 비가 내렸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도 총 205.4mm로 전년도 89.6mm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수확에 들어간 하우스딸기인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높

은 습도 때문에 잎과 열매에 곰팡이가 크게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딸기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었다.

봄철 월동채소 킷루름 틈새작목으로 인기가 높은 초당옥수수과 미니단호박도 잦은 비날씨 때문에 육묘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초당옥수수는 정식중이고 미니단호박은 파종 후 육묘 관리가 한창이다.

이 두 작목은 노지 터널재배를 할 때 외부 기온이 낮은 이른 봄에 정식을 하기 때문에 기상조건이 작황을 좌우한다.

하지만 초당옥수수는 연일 이어지는 비 날씨 때문에 정식이 5일 늦어졌고 모종이 노화되고 있다.

미니단호박도 일조량 부족으로 웃자람 증상과 함께 모잘록병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강수량 증가와 겨울철 기온 상승으로 노지감귤은 평년보다 발아가 많게는 8일이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이 해안지역 노지감귤 발아기 예측 결과 제주시는 오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보다 8

일 정도 빠르고 서귀포시지역은 전년도보다 2일, 평년보다는 8일 정도 빠른 오는 26~27일이 될 것으로 봤다.

발아 시기가 빨라지면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눈꽃이 까맣게 고사해 열매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 농기원은 “서리 상습 피해지역인 경우는 감귤원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이달 중하순으로 늦춰야 한다”면서 “봄철 틈새 소득작목에 대해서도 돌풍이 많이 부는 3~4월 터널비닐에 흙을 잘 덮어서 비닐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6.
제주매일 5

(한라일보: 2024년 3월 06일)

○ 지긋지긋한 ‘비’ … 제주 농가 ‘한숨’ - 3면

지긋지긋한 ‘비’… 제주 농가 ‘한숨’

일조량 부족으로 채소·감귤류 병충해 확산 ‘비상’
감자·무·당근 출하량 줄고 양배추 등은 품질 저하

올해 들어 기온 상승과 함께 잦은 비날씨로 인해 채소류 수확은 물론 파종에도 지장을 받는 데다,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웃자람 현상과 병충해 확산으로 농가의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5일 제주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2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평균 기온은 8.5℃로 전년보다 0.7℃, 평년보다 0.2℃ 높았다. 잦은 비날씨로 인해 일조시간은 13.1시간으로 전년보다 31.8시간, 평년에 견줘서는 23.8시간 적었다.

반면 강수량은 40.0mm로 전년보다 33.7mm, 평년보다 20.1mm 많았다. 이번주도 연이어 비날씨가 예보되

면서 농가에서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다.

최근 학교 개학시기를 맞아 채소류의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웃자람 현상과 병충해 확산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 소득에 지장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조사 결과 감자·무·당근의 경우, 출하물량이 줄고 양배추·브로콜리·쪽파 등은 품질 저하 및 작황 부진 등이 예상되고 있다. 가격대는 당분간 모두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정작 상품 출하량이 적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은 평년보

다 줄 수 있다.

지난 주 서울 가락공판장 평균가격은 감자 5만9801원, 무 1만2389원, 당근 4만3920원(이상 20kg 기준)으로 평년에 비해 모두 좋은 시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상 악화에 따른 출하량 부족과 상품성 저해는 가격 형성에 발목을 잡았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이상 8kg 기준)의 평균가격은 5861원, 3만1060원이었다. 쪽파(1kg 기준)는 3656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최근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마늘·양파·쪽파 등의 웃자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들음병, 세균성점무늬병, 균핵병, 부름병 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른 예방적 방제와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수확률이 80%대에 머물고

있는 가을감자의 수확 지연과 함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봄감자 파종이 일부(15%) 지연되고 있다. 양배추(65%)와 당근(85%)도 수확할 물량이 남아 있어 빠른 시일내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호박도 3월 하순 정식을 위한 육묘가 한창이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웃자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기가 높은 초당옥수수의 정식도 예정일보다 5~7일가량 늦어지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감귤류와 관련해서는 “노지감귤의 발아가 평년보다 8일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일조량 부족에 따른 만감류의 낙과가 늘어 잿빛곰팡이병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6.

백금닷컴3.com

(제주일보: 2024년 3월 06일)

○ 잦은 비… 농작물 관리 주의-4면

잦은 비…농작물 관리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봄철 월동채소 뒷그루 틈새 작목으로 인기가 높은 초당옥수수와 미니단호박의 안정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를 5일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초당옥수수는 정식 중이고, 미니단호박은 파종 후 육묘 관리가 한창이다.

두 작목은 노지 터널재배 시 외부 기온이 낮은 이른 봄에 정식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작황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모종을 옮겨 심고, 생육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당옥수수는 최근 잦은 비 날씨로 정식이 5일가량 늦어지고 있다. 모종이 노화하면 수량이 떨어지는 만큼 육묘 일수가 2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6.

제주일보 4자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06일)

○ 농업·농촌 소식-13면

■ 농업·농촌 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및 병해충 방제 정보		
▲시설딸기 △2화방 수확 마무리, 3화방 과실 비대중 △일조부족에 따른 과습 포장 일부 잿빛곰팡이병 발생 ▲양배추 △짚은 비닐씨로 일부 포장 통터짐 현상 및 균핵병 발생 ▲양파	△짚은 비닐씨로 일부 잿빛곰팡이병 발생 △물빠짐 나쁜 포장은 시들음병 발생 우려 ▲초당옥수수 △2월 28일부터 노지터널재배 정식 시작. 짚은 비로 예정일보다 5~7일 지연 △외부기온 15도 이상 분엽 3매 정도에 정식하는 것이 좋으며 육묘기간	이 길어지면 묘가 노화되어 수량 및 상품성 크게 감소 ▲단호박 △정식 30~35일 전 파종 △발아 후 순차적으로 온도를 내려 옷자람을 방지하고 분엽 3매 시야간 10~13도 저온조건을 형성해 암꽃 수를 늘려줌 △파종 25일 후 요소 0.2%액(물 20ℓ에 요소 40g) 엽면시비 ▲문의=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6.

뉴제주일보 13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06일)

○ 제주 양배추 농가 ‘이중고’ … 전남산 경합에 연일 비-6면

제주 양배추 농가 ‘이중고’…전남산 경합에 연일 비

제주농협 “제주산 품위 철저히 관리…전남지역 관계 기관과 지속 소통, 수급 협력 모색”

제주 양배추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남산 재배 물량 출하가 이달 중순부터 출하되는 데다 연일 내리는 비로 작황마저 좋지 않아서다.

양채류제주협의회(회장 김병수)에 월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28일 전남 무안 지역 양배추 작황 상태를 둘러 보고 출하 시기 중첩에 따른 양배추 경쟁력 3.6.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뉴제주일보 6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은 작목 전환으로 양배추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양배추 출하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양채류제주협의회는 출하가 본격화되는 이달 말쯤 제주산 양배추와 경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양배추 출하 물량 조절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 양배추 농가는 최근 잦은 비

오는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특히 제주 서부지역 양배추 밭에 서는 수확 지연에 따른 구 터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육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양배추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윤재춘 제주농협 본부장은 “최근 지속적인 비 날씨로 서부지역에서 생육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양배추가 다수 발생했다”며 “제주산 양



배추 품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남 지역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수급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제주매일: 2024년 3월 06일)

○ 농작물 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과다 농업인 ‘불만’ -6면

농작물 재해보험 자기부담비율 과다 농업인 ‘불만’

10%·15%형 가입조건 까다로워 대부분 20%형 선택 제대로 보상 못받아
도·서귀포시 “감률 10%로 하향, 도내 손해평가사 조사참여 의무화” 건의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폭우와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재해보험 보상 기준이 너무 높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NH농협 손해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에서는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고 있다.

NH농협 손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발생할 경우 피해 3.6.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제주매일 7하고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3%형의 1~2개 품목을 제외하고 감률을 포함한 전국의 대다수 농작물은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이 적용되고 있다.

20%형 이상은 임의 선택으로 모든 농가가 20%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10%형의 경우 가입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최근 3년간 손해를 120% 미만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있다.

또 15%형은 최근 2년 보험 연속 가입, 최근 2년 손해를 120%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10%, 15%형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제한되면서 도내 대부분의 감률 농가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0%형에 가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내 감률 농가들은 열매가 갈라지는 열과 피해를 많이 받으면서도 자기부담비율 때문에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2중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최근 감률 재해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을 가입 횟수나 손해율에 관계없이 10%로 낮춰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 손해보험에 건의했다.

도와 서귀포시는 또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시 작물의 특성과 지역내 환경

을 잘 알고 이해하는 도내 출신 손해평가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NH농협 손해보험 제주총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다수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자기부담비율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사에서 자기부담비율 및 손해평가사 배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서귀포시 관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2021년 1만4094농가 1만9221건 △2022년 1만2965농가 1만8323건 △2023년 1만2819농가 1만7935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고두성 기자

(제주매일: 2024년 3월 06일)

○ ‘임대형 스마트팜’ 도전 청년농 모집 한국농어촌공사, 25일까지 신청 접수-6면

‘임대형 스마트팜’ 도전 청년농 모집
한국농어촌공사, 25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시설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3.6. 지월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스마트폰 혁신밸리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2년 이상 운영한
사람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대학교 졸
업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모두 13개의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며, 모집 대상 농지 소재지는 경기 안성, 강원 횡성, 경북 상주, 경북 경주,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총 6개 지역이다.

박경철 기자